

일본연구소 제 7회 집담회

주제: 근대 일본 불교의 동점(東漸) - 북미 개교(開敎) 1세기를 평가하며 -

발표자: 윤기엽(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수연구원)

토론자: 신규탁(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날짜: 10월 21일 수요일 4시 61동 120호

내용요약

일본 메이지기(明治期)의 급속한 사회발전에 대응하여 전개된 근대불교의 다양한 현상들 중 하나가 각 종파에서 수행한 해외포교(海外布敎)이다. 아시아 지역의 포교가 일제(日帝)의 아시아 침략과정에서 수행되었다면, 북미(北美)지역의 포교는 하와이와 미대륙으로 건너간 일본인 노동이민(勞動移民)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졌다. 일본인의 미국 이민사(移民史)와 연계되어 전개된 북미지역 포교는 일본불교의 해외포교 전반을 파악하거나, 동아시아 불교의 서구진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19세기 말경에 시작된 북미지역 포교는 정토진종(淨土眞宗), 정토종(淨土宗), 임제종(臨濟宗) 등 국내의 유력종파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샤쿠 소엔(釋宗演), 샤쿠 소카츠(釋宗活),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등의 활동으로 서구에 선불교(禪佛敎)가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포교활동은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종전 후에는 대부분의 활동이 재개될 수 있었고, 다양한 포교사업이 전개되었다. 전과는 달리 일본경제의 성장을 배경으로 보다 호전된 여건 속에서 포교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진종 본원사과는 1999년 미국포교 100주년을 맞았다.